

■ 센터 소장 인사말

세브란스의 통일보건의료 역량은 더 커지고 더 결집되었습니다

뜨거웠던 한반도의 2019년 봄과 초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이,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일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인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위하여도 중요한 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 한국인들의 책임은 그만큼 크고도 무거운 것입니다.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도 지난 3개월간 바빴습니다. <통일과 나눔 재단>에 신청하였던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대응 프로그램”이 선정되면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뛰고 계신 핵심 전문지원자들 중 탈북자 출신 10명, 남한 출신 10명의 총 20명을 선발하여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발된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탈북자 분들을 돕고 계시기에, 우리 프로그램에 참석 대상자는 20분이시지만, 그 뒤에 있는 수 백, 수 천명의 탈북자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신 통일과 나눔에도 감사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소식에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들이 연구비 수주를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재단으로부터 5년 간 5억 원의 연구비를 받으신 간호대학 추상희 교수님과 1년 간 5천 만원의 연구비를 받으신 의과대학 강영애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는 향후 통일보건의료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많은 연구들의 첫 시작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소식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통일보건의료센터의 발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님들,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실 통일국제의료 겸무교수님들 등 총 2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5년 간 이루어진 통일보건의료센터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연세의료원의 통일보건의료 관련 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결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많은 의견들은 정리되어 하나씩 실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교수님들과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의 진전을 위한 더 좋은 소식과 활동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 - Help for Helpers (H2) 프로그램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공모>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난 5월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서 주관/주최하는 <2019년 통일 나눔펀드 지원사업 공모>의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정부 공식 기부금품 모집단체로서, 모아진 기부금을 다양한 분야의 통일 단체와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전한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통일 관련 단체 122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일 콘텐츠 제작, 탈북민 지원, 대북 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통일보건의료센터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 (Help for the Helper, 이하 H2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지원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돕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소진(burn-out)"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수행한다.

H2 프로그램 소개

탈북민을 돕는 전문지원자들, 능력의 한계와 탈진, 소진 경험해...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이들은 남북한 사회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와 적응, 취업 혹은 자녀 양육과 같은 현실적 필요에 대한 대처, 알코올 중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내면세계 상처 치유 등 다양한 과제를 마주하며 힘겨운 삶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그들의 정착을 헌신적으로 돕는 "전문지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을 가진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전문지원자들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새로운 능력, 지식,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한 채 탈진과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정서적 우울감과 무력감,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 신체적인 몸의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문지원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소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탈북민 정착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 - Help for Helpers (H2) 프로그램

전문지원자들 대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전문 프로그램

전문지원자들의 역량강화와 소진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통일보건의료센터는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지원자들에게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역량강화와 소진 대응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NGO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다수 프로그램은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반나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단편적인 주제만 다룰 뿐 전문지원자 자신의 소진과 동기부여와 관련된 심층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소수의 전문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총 7차의 과정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예술치료학 등을 접목하여 전문지원자들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법을 익히고, 트라우마/우울/수면장애 사례 논의, 스트레스/중독/통증에 대한 이해와 대처 등을 다룬다.

회차	일시	내용
-	6.17(월) 18:30 ~ 21:00	오리엔테이션 (본관 6층 제 3세미나실)
1	6.26(수) ~ 6.28(금)	1차 워크숍 (제주도)
2	7.13(토) 09:30 ~ 14:30	역량강화 세미나 1 (본관 6층 제 3세미나실)
3	8.24(토) 09:30 ~ 14:30	역량강화 세미나 2 (본관 6층 제 3세미나실)
4	9.21(토) 09:30 ~ 14:30	역량강화 세미나 3 (본관 6층 제 3세미나실)
5	10.25(금) ~ 10.26(토)	2차 워크숍 (강릉)
6	11.14(목) 14:00 ~ 17:20	열린 강좌 (ABMRC 유일한홀)
7	2020. 1.17(금) 14:00 ~ 18:00	탈북민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심포지엄 (ABMRC 유일한홀)

프로그램 일정표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 - Help for Helpers (H2) 프로그램

탈북민 지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지속하는 힘 갖는 전환점이 될 것

본 프로그램은 탈북민 정착 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전문지원자들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7번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전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소진에 대한 대응을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의미 있는 격려를 받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갖는 전환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전문지원자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간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향후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더욱 높이는 대(對)사회 활동을 이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

오리엔테이션 현장 스케치

6월 17일 월요일, 세브란스병원 제 3세미나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그들은 바로 탈북민 정착을 돕는 현장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H2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다.



다소 서먹한 표정으로 둘러 앉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 참가자들의 짧은 자기 소개를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이 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H2프로그램의 취지와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공지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 - Help for Helpers (H2) 프로그램

제 1차 워크샵 현장 스케치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대응 프로그램(이하 H2 프로그램)의 첫 워크샵이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남한 출신 10명, 북한 출신 1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지난 6월 28일 이른 아침 김포공항에서 제주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간에 진행되는 집담회 시간에는 각자가 전문지원자 역할을 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들과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2박 3일간 강의와 토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소화한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법, 방법들을 배웠으며 동시에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평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전문지원자들은 상담 시 내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담 시 유용한 기법들을 몸소 체험하며 배웠다. 또한 신선한 제주의 바람과 자연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통해 지친 마음과 정신을 달래기도 했다.



2019 통일보건의료센터 발전워크숍

지난 6월 22일 토요일,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센터의 현황에 대한 공유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헤이리에서 진행된 이번 발전워크숍에는 통일보건의료센터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의 센터 운영위원 뿐 아니라 관계된 의과대학 인문사회이학교실 통일국제의료파트 겸무위원을 비롯하여 향후 통일보건의료 분야 활동과 발전에 관심을 표한 원내 교직원 23 명이 참여했다.



전우택 소장이 " 현한반도 상황과 보건의료영역 활동 준비 " 를 주제로 발제하며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됐다. 이어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는



통일보건의료센터의 현재 활동 및 구조 등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끝으로 박영환 심장혈관병원장은 평양을 방문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 곳의 보건의료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평양심장전문병원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발제 내용 및 향후 세브란스의 대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 자신의 분야에서 가진 의견 및 궁금한 점 들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헤이리 예술마을의 사진 전시와 도자기 전시 관람을 하며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이 날 발제와 토론을 토대로 향후 센터의 활동 전략 및 방향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제 38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 “북한 보건의료 변화의 역사와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 시 고려점” - 이해원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과장

□ 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6시

□ 장소 :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 요약 : 북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구 소련의 몰락과 함께 겪은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의 변화와 국제사회 및 한국의 북한 개발원조 지원과 북한 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분석했음. 또한 결핵, 예방접종관리, 모자보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북한의 관리체계,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언함. 마지막으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국가 단위의 보건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함.



연자 소개 이해원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과장

경력

현)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

현) 통일부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전문위원

현)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현) 복지부 남북보건복지민관협력포럼 전문위원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연구교수

제 39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 “2019년 5월 7일의 평양, 그리고 보건의료의 모습” -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후 6시

□ 장소 :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 요약 : 평양에서 열린 ‘평양 당뇨병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의료기관을 견학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진과 후기를 공유함.



연자 소개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력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보건의료학협동과정 교수

현)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

현)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총무 및 상임이사

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당뇨센터장 및 임상시험 센터장

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이사

통일보건의료세미나 안내

차수	일시(예정)	장소(예정)
제 40차	9.24(화) 저녁 6시	의과대학 본관 1층 의대회의실
제 41차	10.29(화) 저녁 6시	
제 42차	11.26(화) 저녁 6시	

※ 매 월 넷 째 주 화요일 오후 6시 (방학 기간 7, 8월 제외)

주제, 연자, 장소 등 상세 정보 e-mail과 포스터 게시물을 통해 확인

연구활동 소개

연구과제명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
책임자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1. ~ 2024. 5.31 (5년)

연구과제명	수리 모델을 활용한 북한 결핵 및 말라리아 발생 예측 기초 연구
책임자	강영애 의과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28. ~ 2020. 6.27 (1년)

기타·광고

통일보건의료학회 2019 학술연구 공모전



□ 목적

통일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의욕 고취, 연구 수준 향상 및 학문연구

□ 공모 자격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전공제한 없음), 석박사 소지자 및 대학, 연구소 소속 교원 및 연구원

□ 접수기간 : 2019. 8. 1(목) ~ 8.30(금)

□ 지원내역 : 연구비 500만원

□ 신청 / 문의

통일보건의료학회 홈페이지(www.ahku.kr)내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제출
ahku.office@gmail.com / 02-2227-4258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 2019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난 6월 21일 금요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19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한반도 전환기의 남북보건의료 개발협력”을 주제로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의 발표와, 남북보건의료 개발협력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1부 세션은 남북보건의료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주제로 정진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제약산업분야에서의 한반도 발전 모델'을, 김태형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전무가 '원격의료 및 ICT 기반의 남북보건의료 개발협력'을 최병근 IDS Korea 기공소 대표는 남북 치과 보건의료분야 인력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부는 '통일보건의료 업데이트'를 주제로 통일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가 인명사전인 "Who's Who" 제3판 및 최신 연구보고 발표, 지난 한 해 발표된 통일보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어지며 통일보건의료분야의 소식을 업데이트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한반도 격변의 시기에 남북관계의 보건의료협력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본 학회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시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관계의 장이자 활동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 《Who's who》 제 3판 출간

통일보건의료학회는 2015년부터 통일보건의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명단과 주요 활동 내용 및 관심 분야를 정리한 <Who's Who 통일보건의료 인명사전>을 출간해 오고 있다.

2015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인명사전 제 1판이 출간되었고, 2017년 2판이 나왔으며, 올해 2019년 3판이 출간되었다.

1판, 2판에 이어 2019년에 출간된 3판은 지난 6년간 학회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연구, 교육, 정책수립, 사업 지원 및 다양한 형태의 활동 수행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학회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한의학 의료행정학,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보건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정보가 기록된 <Who's Who> 사전은 향후 정부, 민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보건의료 영역의 남북 교류 및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Who's Who 통일보건의료 인명사전> 관련 문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메일(ahku.office@gmail.com)

